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기도를 미리 가다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10월은 한 해의 속도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달입니다. 단풍이 물드는 만큼 마음도 익어가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 놓쳤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랑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 속에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마음 문 열게 하옵소서.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1 - 예배로 모이는 마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시편 63:1,3)

주님, 주일 오후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전의 예배로 받은 은혜가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예배를 이끌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내느라 쌓인 피로와 짜증, 말로 다하지 못한 상처가 예배를 가리려 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괜찮다”는 말로 덮어둔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새 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고백이 삶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태도 하나, 학교에서의 선택 하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안내와 방송, 주차와 새가족 섬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드리는 예배'에 머물지 않고 '살아내는 예배'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맡은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도 방어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뒤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한 주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굳어진 마음은 눈물로, 흩어진 마음은 한 믿음으로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2 - 종교개혁의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은혜의 하나님, 10월의 끝자락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익숙해진 신앙의 언어 뒤에 숨어 있는 교만과 안일함을 드러내 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자리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성경을 펴는 손이 가벼워졌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편리함을 따라 선택하며,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내어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자기 의'를 꺾어 주옵소서. 남보다 낫다는 비교, 열심으로 의를 세우려는 조급함, 남을 판단하며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는 습관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짜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경쟁, 불안한 미래 속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길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교회가 다시 겸손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려는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오후 예배에서 다시 한 번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며,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3 - 가정과 일터의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각기 다른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쌓인 말 못 할 서운함과 오해를 풀어 주시고,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서로를 세워 주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의 벽이 높아질 때, 정죄가 아니라 이해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교의 자리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과와 평가, 관계의 긴장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직을 지키는 일이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절기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약해져 예배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버거워하는 이들에게도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도움을 구하는 용기를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쉬어야 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살리는 말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4 - 다음세대를 위한 축복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5-6)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맡겨 주신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교와 경쟁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시대에,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먼저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대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압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의 신앙이 '말'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힘이 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용기를 알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두고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평안을 주시고, 결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또래 관계와 온라인 공간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아 밤을 뒤척이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서둘러 정답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열정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변화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말과 눈빛과 태도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공동체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5 -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시대에, 우리 마음이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편 가르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따르게 하시고,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과 제도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언어 대신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과 폭력,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집을 잃고 떠도는 이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이들, 하루의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국제 사회와 구호의 손길이 지혜롭게 연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이 절망의 땅에도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언어의 벽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동역'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과 삶의 순종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역을 품게 하옵소서. 외로운 이웃, 청년의 불안, 아이들의 상처, 노년의 고독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작은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그 평화가 복음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이 중보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더 선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소망의 등불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6 - 감사와 새로움의 결단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하시는 하나님, 10월 넷째 주일(예: 2026년 10월 25일) 오후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나온 은혜를 세는 시간’이자 ‘다가올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숨, 가족, 한 끼의 식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곁에 있어 준 한 사람의 위로까지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쁨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옵소서. 불평이 습관이 될 때 감사가 말라갑니다.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조급해질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살리는 말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이웃만 돌아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찾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외로운 독거 어르신, 언어가 서툰 이주 이웃, 병으로 힘겨운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숨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손과 발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의 결단을 주옵소서. 예배 후에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갈등 앞에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분명한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낮아져 섬기며, 더 담대히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